국별리포트

중국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6.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1

Ⅲ. 정치·사회동향 7

Ⅳ. 국제신인도 9

Ⅴ. 기 타 11

Ⅵ. 종합의견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 국

면 적	956.1만 km^2	G D P	422백억 달러(2008)
인 구	13.3억 명(2008)	1인당 GDP	3,180달러(2008)
정치제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화단위	Yuan(RMB)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외교	평균환율(달러당)	6.95/USD(2008)

I. 일반개황

□ 중국은 한족(93%)을 포함한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탄, 석유, 철광석 등의 천연자원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 '78년 개혁개방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덩샤오핑(鄧小平)의 우선발전론(先富論)의 기치 아래 동부 연해지역에 한정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낳았음. 최근 균형발전론(共富論)으로 경제발전 방향을 선회하여 그 동안 소외되었던 서부지역의 대개발, 동북지역의 재건에 이어 중부지역의 도약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함

□ 특히 '02년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등장 이후 기존의 양적 성장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질적성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이에 따라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원 확보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e
경제성장률	10.1	10.4	11.6	13.0	9.0	7.2
재정수지/GDP	-1.3	-1.2	-0.8	0.6	-0.3	-3.8
소비자물가상승률	3.8	1.8	1.8	4.8	5.9	-0.5

자료 : IFS, GDF, EIU, Worldbank 등

□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최근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

○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는 '08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급속하게 둔화되어 '08년 9.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7분기 연속 성장률 감소추세 지속*

* '09년 1~5월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8% 감소
** 분기별 성장률 : 10.6%('08년 1분기) → 10.1%('08년 2분기) → 9.0%('08. 3분기) → 6.8%('08년 4분기) → 6.1%('09년 1분기)

○ '09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가능성이 낮아 7.2%의 성장률 기록 전망[1)]

□ 수출과 투자 위주의 불균형 성장 지속

○ '07년 투자와 수출,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각각 37.7%, 23.7%, 38.6%로 경제성장이 아직까지는 수출과 투자에 주로 의존

- 소매판매증가율이 '07년 10%대에서 '08년 20%를 상회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내수부양책으로 내수 비중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나 수출위주의 경제구조가 빠른 시일내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신농촌 건설과 도시화 추진 등으로 내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성과 미흡

□ 수요감소로 물가는 안정적 추세 유지

○ '08년 상반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08년 하반기부터 경제침체에 따른 원자재 등의 수요 감소로 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여 '09년 -0.5% 안팎의 물가상승률 기록 전망

□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 악화

○ 중국은 '07년 GDP대비 0.6%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건전한 재정수지를 기록하여 왔으나 '08년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철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쓰촨성 지진 재건사업 등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08년 소폭의 적자 기록

1) Worldbank는 '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6.5%에서 7.2%로 상향조정(09. 6. 19)

○ 수출촉진을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상,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등으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지속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09년 -3.8%까지 확대될 전망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균형발전 등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추진

○ 지역간, 도농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그 동안 유지해왔던 우선 발전론(先富論)에서 균형발전론(共富論)으로 국가 발전정책 전환('05)

- '00년 서부지역의 대개발, '03년 동북지역의 재건에 이어 '05년 중부지역의 도약 관련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08년 쓰촨성 지진 피해로 인해 서부대개발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

○ 민간부문의 발전을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규모를 종전 50만 위안(약 73,529 달러)에서 3만 위안(3,750달러)으로 대폭 축소

□ '08년 하반기부터 8% 성장을 고수하기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

○ 경제위기 직전까지 중국은 성장률의 일정부분 하락을 용인하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대외여건의 급속한 악화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 중국정부가 목표로 한 성장의 최저 마지노선(8%)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

□ 경기부양은 '내수확대'와 '수출 및 금융지원'의 방향으로 진행

○ 중국정부는 '내수확대'와 '수출 및 금융지원'의 두 가지 방향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

- 내수확대 : 4조 위안(약 5,8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실시, 농민의 가전제품 및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家電下鄕, 汽車下鄕), 오래된 가전제품 폐기 및 자동차 폐차 후 신규구매시 보조금 지급(以久換新) 등

- 수출 및 금융지원 :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상향, 금리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

○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해 1년 만기 대출금리를 '08. 9월 7.47%에서 5차례에 걸쳐 총 2.16% 포인트 인하하여 5.31%로 조정하는 한편, 지급준비율도 '08. 8월 17.5%에서 14.5%(중소은행은 13.5%)로 3% 포인트 인하

- 이에 따라 '09. 1월 ~ 4월 신규대출은 5.3조 위안(약 7,700억 달러)이 증가('08년 전체의 신규대출 총액은 4.9조 위안)

□ 수출 상품구조 고도화를 위해 저부가가치제품 수출 억제 추진

○ 자원과 노동집약적 제품 등 저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억제하는 반면, 첨단 기술제품 수출 촉진

○ 수출 주력 품목이 섬유 등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가전을 포함한 전기전자, 기계류 등 기술·자본집약적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

- '08년 전기전자와 기계류의 수출 비중이 각각 23.9%, 18.8%로 전체 수출의 42.7%를 차지하는 반면, 섬유제품은 7.9%를 차지하여 3위에 그쳤으며, 점차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07년 8.9%)

○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등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 인상, 금융지원 확대 등의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악화된 경제사정을 고려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 추진 전망

□ 산업 구조조정 유도 정책, M&A를 통해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

○ 국유기업 중심의 대형화를 통한 산업집중도 제고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기간산업이면서 공급과잉인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조정 추진

- 최근에는 '상업은행의 M&A 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한 통지('08. 12)'를 발표, M&A를 통한 국유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도모

○ 이와 함께 '산업구조조정 잠정 규정'('05), '산업구조조정 목록'('05), '생산능력 과잉업종의 구조조정 가속에 관한 통지'('06)를 제정하여 철강, 전해알루미늄, 칼슘카바이드, 합금주철, 동, 코크스, 자동차, 시멘트, 석탄, 전력,

방직 분야의 노후 기술과 낙후 설비 폐기에 주안점을 둔 구조조정 추진

○ 2조 위안에 이르는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M&A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 제고 도모*.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GM의 허머(Hummer), 볼보(Volvo) 등 브랜드의 인수를 시도 중

* '09년 1분기 전세계 M&A 시장이 대폭 위축된데 반해 중국기업의 M&A는 218억 달러로 동기대비 40% 증가

□ 에너지 절약 및 신규 에너지원 확보 노력

○ 에너지 수요와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노후 기술과 낙후 설비를 폐기하는 한편, 단위당 GDP 대비 에너지 소비율을 '05년 기준으로 '10년까지 20% 절감 추진

○ 에너지 이용에서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0년 10%, '20년 15%까지 확대하는 총량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원 다양화 및 환경오염 억제

○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원조와 자원의 교환, M&A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원확보 실시

□ 금융부분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대출의 급속한 증가로 부실채권 증가 가능성 대두

○ 국유상업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활용하여 국유상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외국금융기관에 지분을 매각하는 한편, 상하이, 홍콩 등 증시에 상장

- 국유상업은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투자공사(中國投資有限責任公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유상업은행 자본금 증자 실시. 중국농업은행과 농촌신용합작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

○ '09. 1분기 중국 전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4%로 표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이는 '08년 4분기 농업은행과 선전개발은행의 부실채권 약 7,594억 위안(약 1,117억 달러)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였기 때문

* 부실채권비율 : 5.6%('08년 2분기) → 5.5%('08년 3분기) → 2.4%('08년 4분기)

- S&P 등의 추산에 의하면 실제 부실채권비율은 '07년 말(6.17%) 대비 0.8~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최근 완화된 금융정책으로 신규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

○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통해 홍콩 및 주변국과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e
경 상 수 지	68,659	160,818	235,268	371,833	426,100	346,900
경상수지/GDP	3.5	7.0	9.1	10.7	10.1	7.4
상 품 수 지	58,983	134,189	217,746	315,381	360,700	322,300
수 출	593,393	762,484	969,682	1,220,000	1,434,600	1,163,500
수 입	534,410	628,295	751,936	904,618	1,073,900	841,200
외 환 보 유 액	609,932	818,872	1,066,344	1,528,249	1,946,030	2,095,700

자료 : IFS, GDF, EIU, 중국 인민은행 등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 '08년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과 동시에 수요 감소로 수입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도 대비 증가

○ 상품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08년 말 1조 9,460억 달러) 이자 수입 등에 의한 소득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지난해 3,718억 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08년에 4,261억 달러로 증가

□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내수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어 외환보유고 지속 증가

○ 고도성장의 후유증 탈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자원 다소비, 환경오염 유발,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상향 조정, 신노동계약법 등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 외국자본의 M&A에 대해 중앙정부 인가를 받도록 규제 강화

- 외국기업이 기간산업, 유명 상표, 유명 전통기업(老字號) 등의 실질적인 적대적 M&A시에 상무부(商務部)에 보고

- M&A 관련 독과점 규제를 위해 중국 내 자산 30억 위안, 인수기업의 매출액 15억 위안, 시장점유율 20%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합병 후 시장 점유율 25%일 경우 상무부의 인가

○ 그러나 소득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하여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첨단기술 산업 위주의 외국인투자 꾸준히 유입

- 투자환경 악화에도 불구,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08년 92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 다만, 세계 경제위기로 '09. 4월까지 FDI 유입액은 34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

○ FDI 유입과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 등으로 '06년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한 이후, '08년 말에는 외환보유고는 1조 9,460억 달러를 기록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후진타오(胡錦濤) 중심 지도체제의 정치적 안정 지속

○ '02. 11월 중국 공산당 제 16기 전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진타오 중심의 지도체제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07년 가을 공산당 제 17기 전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9명) 중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지지를 받는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

□ 인터넷 등 미디어 통제 강화로 정치적 소요 차단에 주력

○ 후진타오가 전임 지도자에 비해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등 미디어에 대한 통제 강화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업 증가, 빈부격차 등 문제로 사회 불안요인 잠재

○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폐업 등으로 실업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업자 증대가 지역간, 도농(都農)간 소득격차와 맞물려 사회불안 초래 가능성이 있음

- '08년 실업률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2)]

○ 이 때문에 동북지역의 재건, 중부지역 도약, 농민 소득 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으로 화합사회(和諧社會)의 건설을 추진

□ 소수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 등 불안요인 내재

○ '08. 3월,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여 진압과정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중국정부는 다른 민족으로 독립 요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초기대응을 실시하였으며, 쓰촨성 지진, 올림픽 등으로 독립관련 이슈가 희석되어 안정을 찾았으나 소수민족 문제를 둘러싼 불안요인 잠재

□ 경작지 회수에 대한 보상 미흡,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잦은 시위 발생

○ 농민 경작지 사용권의 불합리한 회수, 관료의 부정부패, 환경오염 등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경영 악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동 관련 분쟁 및 소송이 늘어나고 있음

3. 국제관계

□ 대만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변 국가와도 원만한 관계 유지

2) EIU의 자료

○ ‘08년 대만총선에서 당선된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대만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긴장관계는 완화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이 대만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경제협력 가시화

○ 주변국가(아세안,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은 물론 아프리카와의 관계개선 지속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도모

- 특히, 금융위기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통화스왑을 체결,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 등 영향력 확대

□ 선진국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 및 무역관련 갈등 잠재

○ 미국과는 인권, 군사, 통상 등 문제와 아울러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유대 강화 움직임 등 갈등소지가 상존하고 있지만,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당분간 대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위안화의 저평가 논란 속에 점진적인 절상이 지속. 최근 세계 경제위기에서 중국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상을 둘러싼 선진국과의 마찰은 표면상으로 줄어들었으나 갈등요인 잠재

- ‘05. 7월 위안화의 2.1% 절상과 함께 환율 결정시스템을 미국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에서 관리변동 환율제로 변환한 이후 ‘06년 3.0%, ’07년 6.5% 절상되었으며, ‘08년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위안화 환율 절상이 지속되어 1달러에 6위안 대 진입

○ 경제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국제규범 준수가 미흡하여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마찰 발생

- 자동차 부품에 대한 높은 수입 관세율 부과,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세제혜택) 지급, 인체에 유해한 물질 사용으로 수출제품 안전성 논란 확대 등

Ⅳ.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전망 큰 변동 없음

○ Moody's : A2(positive, '06. 7) → A1(stable, '07. 7)
○ S&P : A(positive, '07. 7) → A+(stable, '08. 7)
○ Fitch : A(positive, '06. 9) → A+(stable, '07. 11)
○ OECD등급 : 2등급('07. 3) → 2등급('08. 4) → 2등급('09. 4)

2. 외채상환 태도

<표 3> 외채관련 주요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e
총 외 채 잔 액	247,492	281,645	322,988	373,618	379,800	321,500
총외채잔액/GDP	12.8	12.2	11.6	10.1	9.0	6.9
D. S. R.	3.3	3.0	2.4	2.1	1.8	2.3

자료 : 중국외환관리국, EIU 등

□ 대외채무 절대 규모는 크나 관리 가능

○ '08년 말 총 외채잔액이 3,747억 달러로 절대 규모가 큰 편이지만, GDP 대비 9.0% 수준

- 단기외채는 '08년 말 현재 2,108억 달러(56.3%)로 전년 말 대비 4.2% 감소

○ D.S.R이 1.8% 수준으로 단기 채무로 인한 리스크는 크지 않음

□ 대외지급 능력 양호

○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핫머니 유입 등으로 '09. 4월 외환보유액이 '07년 말 대비 4,255억 달러 증가한 1조 9,537억 달러를 기록하여 외화유동성 풍부

○ 리스케줄링, 연체 경험 없음

□ 외환관리 강화로 핫머니의 급속한 유출 가능성도 높지 않음

○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로 외화 유동성 확대 적극 차단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의 적절한 이용 도모

- 외환등기제[3] 등을 통해 유출입 외환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 기업의 외화 보유한도 폐지 및 은행, 보험, 기금 등 QDII(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를 획득한 20개 기관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 허용, 해외투자 한도 폐지로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도, 중국 투자공사를 통한 외환보유고 투자 등 실시

○ 한편, 최근 수년간 대규모로 유입된 핫머니가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따라 대규모 이탈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나 중국정부의 철저한 자본통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Ⅴ. 기 타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92. 8. 24.

□ 주요협정 : 무역, 투자보장협정('92),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4), 원자력 협정, 세관협력협정('95), 복수사증협정('98) 등

□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주요 품목
수 출	69,459	81,985	91,389	LCD, 반도체, 무선송수신기기, 석유제품
수 입	48,557	63,028	76,930	철강제품, 반도체, 기계부품, 무선송수신기기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otis.net)

□ 해외직접 투자('08년 말 현재, 투자기준) : 20,064건, 277.0억 달러

Ⅵ. 종합의견

□ 정치적으로 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율 증가와 지역간·도농간 소득 격차, 소수민족들의 독립요구로 인한 잠재적 불안 요인이 부분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에 따른 화합사회를 천명한 후진타오 중심의 지도체제가

3)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인출한도 제한, 수출 예수금 및 수입 후불금의 인터넷 등기관리를 시행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08. 7. 14일부터 시행

정치적 안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경제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내수부양, 4조 위안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 통해 연 8%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선진국 경제회복이 더딘 가운데, 중국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내수부양 및 고정자산투자 확대를 통한 수요창출로 세계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책임조사역 박세근 (☎02-3779-6673)
E-mail : skparkse@koreaexim.go.kr